# "매트에서 영원한 선수로 남고 싶어요"

스포츠 포커스

## 유도 국가대표…여수시청 유광선

"올림픽에 출전 금메달을 획득하는 것도 평생의 꿈이지만 매트에서 영원한 선수로 남고 싶습니다."

유도 국가대표 유광선(34·여수시청)의 꿈이다. 유도계에서 '늦깍이 성공시대'를 연 선수로 불리우는 유광선은 현역 유도 국가대표중 가장 나이가 많다. 유도 인생 자체도 여타의 선수들과는 다른 사연이 많았다. 그렇지만 유광선은 이런것들에 아랑곳 하지 않는다.

그의 인생에서 유도는 삶이자 인생을 사는 희망이요 에너지이기 때문이다.

지난 23일 제47회 전남도민체전 유도 경기가 열리고 있는 고흥군 포두면 포두초등학교 강당에서 여수시대표로 출전한 유광선을 만났다.

서울 배명중 1학년 때 학교에 있던 태권도부에 들었던 유광선은 선배의 권유로 유도에 입문했다. 남들보다 입문자체가 늦은데다 가정 형편이 좋지 않았던 유광선은 중학교 3년동안 전국대회 8강권의 선수로 눈에 띄이지 않았다. 경신고에 진학해서도 역시 유광선의 실력은 두드러지지 않았다.

### 고교때 운동 포기…대학때 다시 시작

그런 그에게 첫번째 시련이 닥쳐왔다. 자신의 실력에 한계를 느낀 유광선은 대학진학이 어렵게 되자 유도를 포기하고 생활전선에 뛰어들었다. 운동만 했던 그가 할 수 있는 일은 많지 않았다. 공사장 막일부터 시계 수리공, 생수공장에서 지게차 운전 등을 하며 5년동안 유도를 잊고 지냈다.

하지만 유광선은 이때 비로소 자신이 유도를 떠나서 살 수 없다는 것을 알았다. 마음속 깊은곳에서 매트로 돌아가라는 목소리가 점점 강해졌고, 다시 마음을 다잡은 유광선은 지난 1997년 달랑 도복하나만 들고 포항시청 입단테스트를 받았다. 집안의 반대도 심했지만 다시 유도를 하지 않으면 평생 후회할 것 같았다.

'늦었다고 생각할때가 가장 빠른때다'는 격언처럼 유광선의 새로운 결심은 뛰어난 성적을 내지는 않았지만 유도관계자들에게 좋은 평을 받았고, 한양대에서 스카우트 제의가 와 한양대 99학번으로 입학, 동기들보다 6년이나 늦은 대학생활을 했다. 90kg급 선수로 뛸 적에는 국내 3위권에 머물렀던 유광선은 2004년 100kg급으로 체급을 올리면서 서서히 빛을 보기 시작했다. 2005 파리오픈, 2006 독일오픈, 중국오픈 1위, 2006 파리오픈 2위등 주요 오픈대회에서 이름을 알려나갔다.

사진 왼쪽부터 임종안 전남유도협회 상임부회장, 김효수 전남유도협회 회장, 유광선 선수, 강장원 여수시청 감독, 김양호 전남유도협회 전무이사.

국내 선발전에서도 항상 우승권을 맴돌았다. 그런데 결정적 순간마다 2004 아테네올림픽 은메달리스트 장성호(30·수원시청)의 벽에 막혀 더 이상 앞으로 나아가지 못했다.

지난 2005년 이집트 세계선수권, 2006년 도하아시안게임 출전권을 연거푸 따내는 데 실패했다.

하지만 유광선은 절치부심 지난해 제46회 전국남녀체급별 유도선수권대회겸 국가대표 3차선발전 결승에서 임승록(27)을 꺾고 9월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에서 열리는 세계대회 국가대표 자격을 얻으며 남자 100kg급에서 뒤늦은 '성공시대'를 열었다.

항상 자신의 앞을 가리던 장성호를 승자 준결승에서 물리치기도 했다. 왼쪽 약지 인대가 끊어지는 부상에도 불구하고 거둔 승리여서 더욱 가치가 있었다.

하지만 2006년 12월에 결혼을 해 신혼생활을 즐길 여유도 없이 태릉선수촌에서만 살았던 유광선은 기대했던 세계선수권에서 5위에 머물러 아쉬움을 남기기도 했다.

지난 2006년 여수시청과 인연을 맺은 유광선은 전남대표로 전국체전에서 매년 금메달을 선물하고 있다. 자연스럽게 전남은 제2의 고향이 됐다.

유광선은 "복잡한 서울에 있다 여수에 내려오면 마음이 평온해지고 깨끗해져 돌아갈 수 있어 너무 좋다"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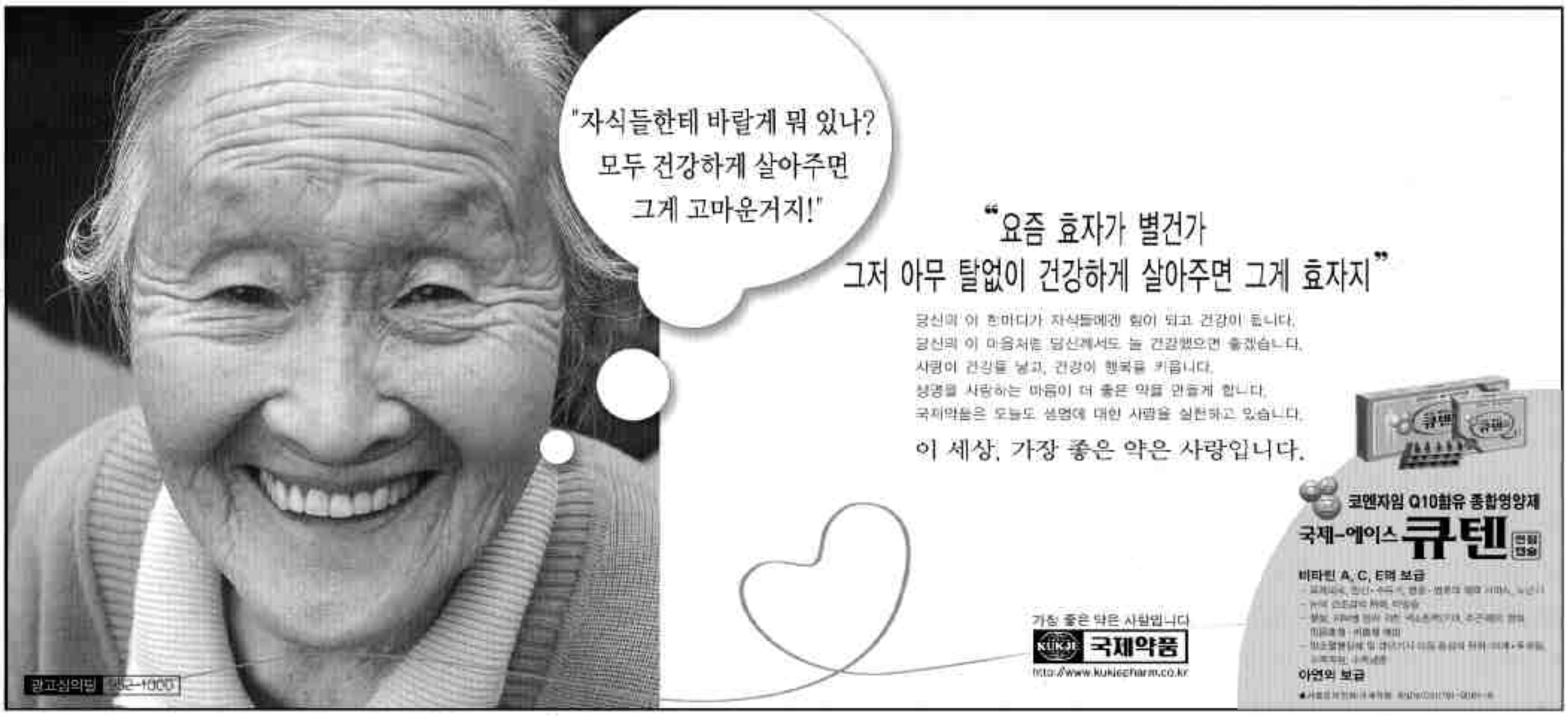
업어치기와 다양한 발기술이 특기인 유광선은 100kg급에서 신장 183㎝에 93~94kg에 불과한 자신의 신체적 조건이 약점으로 꼽힌다. 다른 선수들과 달리 늦깍이로 시작한데다 5년간의 공백은 힘에서 적지않은 차이를 가져온 것이다.

### 베이징올림픽 금 향해 전력 질주

현재 매트에서 유도를 하고 있는 유광선은 행복하다. 그의 좌우명은 현재 하는 일에 대해 성실하자다. 5월에 결정되는 베이징올림픽 국가대표 최종결정전이 남았지만 크게 신경쓰지 않는다.

최고령이란 딱지가 붙은 선수지만 체력이 허락하는 한 매트에 남겠다는 그의 의지가 있는 한 이번 올림픽에서 안되면 다음 올림픽에 도전한다는 생각이다. 너무 편한 생각이라 할 수도 있지만 끝없이 노력하고 절망하지 않고 자신과의 싸움에서 승리하다보면 매트를 떠나지 않을 수 있다고 철석같이 믿고 있다.

'늦깍이' 유광선이 6년후에도 매트위에서 자신의 장기인 업어치기를 하며 포효하는 모습이 기대된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사진=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